

貴教會의 發展을 비오며 다음과
이 교역자・장로 수양회를 가지고자
하오니,公私로 多忙하실줄 아오나,
만일 參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時 日 七月十六日、十八日

場 所 下呂 温泉 小川屋
岐阜 県 益田 郡 下呂

主 題 『오늘의 教會와 宣敎』

講 師 洪 炯 설 博士
(서울 監理敎神學大學 學長)
西村 次郎 先生
(前大阪女學院 院長)

費 用 一九、〇〇〇圓

성령강림절을 맞이하여

스도 안에서 이루어진사를
건을 대담하게 선언할수
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서 선교를
시작한것이 아니라 부환
하신 그리스도와 예수 그
리스도의 약속을 믿은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
고 성령의 강력한 힘에
밀리어서 그리스도의 병
령에 복종함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된것이다.
성령이 제자들을 볼들
때 권위자 앞에서 자기
들의 신앙의 확신과 도
덕적 표준이 하나님 앞
에서 옳은 일인지 아닌
지를 분별할수 있는 권
위의 사도가 된것이다.
부환하신 그리스도와 성
령의 역사에 의해서 제
자들은 증인으로서 주권
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
씀과 인간주의를 분별할
수가 있었던것이다.
이와같은 확신에 의한
신앙은 성령의 역사를통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에 참림하는 원동력이 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교사(史)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의 특종인 대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 세상 사회를 포착하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힘인 것이다. 성령을 통하지 않는 것은 고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도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在日大韓基督敎會가 異民族 가운데 거주하고있는 60萬同胞들에게 그리스도의 종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짐을 받았다는 사명감에서 출발해야 하겠고 우리 敎회가 현재 존재하는 이유가 단순히 日本의 아시아 침략의 과정에서 되 결과라고만 간주하여 아니라 背後에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대로서 이 해하며 재일동포들에게 종의 면애를 베푸는 자리에서 봉사를 함으로써 증인으로써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 조국통일운동하는 데 이바지할 책임과 과 日本 민족과의 화해정신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내적 성화와 외적인 봉사적 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그리스도교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되어온 요건이며 따라서 교회 본래의 계속적인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내적 성화 없이는 외적 봉사가 살아남지 않으며 또한 외적 봉사가 없이는 내적 성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증법적 관계를 이루고 詩統

본정책이 짜임새가 훌륭하고 그 계획수립이 자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능력과 역사자들은 한히 하고서는 그 선교는 처음부터 패배로 도아갈것이다. 그것은 선교의 召命이 바로 성령의 인도는사이기 때문이다.

초대 오순절 교회의성령의 역사도 물론이지만 16세기의 『웨스』의 아성을 무너뜨린 종교개혁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세계사적인 대 사건이었다.

우리 한국교회가 80년의 짧은 역사속에서 오늘날과 같은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것이 異民族의 억압에 시달린 백성들이 현실도피로 彼岸적이며 來世지향적으로 천국만을 소망한데서 온 결과로만 볼수 있을것인가.

우리가 알고있는대로一九〇七년은 한국교회의오순절로 간주되는해이다. 성령의 불길인 열광교

을 잃었던 민중에게
로운 빛과 희망을 불
넣어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놀람과도 기
적적인 사건은 언제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영
힘이 작용한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在日大韓 기독교
의 선교의 대상은 누구
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
이 60万 동포인 것이다.
적도 前近代의 인 요소와
근사한 것이며 폐쇄적인
본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참다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지난 5월
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소수민족 문제를 국제적
인 규모로 대성황리에 거
지게 되었고 또한 성공
리에 폐막된대 대하여 논
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의 선교기본
정책이 60万 동포를 대

館山 伝道所

의 학교인 一信女子高等學校의 出身들이 오게 되었다.

기독교 계통의 학교인 만큼 독실한 신앙을 가진 아가씨들이 많으며, 따라서 日本에 있는 우리 교회나 교역자를 파견하여 外國에서 고독하기 쉬운 아가씨들을 위로하여 줄수 있게 됨은 우리 교회로서는 異色の宣敎라 말하지 아니할수 없다.

이곳에 李大京 강도사(現在西新井敎會)가 수고하시다가 지난 四월부터 李喆周목사(全州기전女高敎牧, 現在慶應大學 留學中)가 每週 수고하게 되었다.

館山는 關東地方會에서 추진하고있는 개척전도소中的 한곳이며 교포는約 70世帶이며 日本全國에서 찾아오기 드문 절대적으로 民團의 세력이 강한 곳이기도 하다.

지난 五월十九일 주일에는 가까운 山에 野外 예배를 가게되어 평소의 피곤함을 풀고 마음껏 異國의 山野를 뛰었다났다.

그러나 부러운것은 예쁜 아가씨들 속에서 목회하게된 이목사다. 현재 약 30명이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그지역의 교포들 속에도 복음을 전할수 있도록 힘써 아가씨들의 신앙의 씨 한알을 그 땅에 남겨 주었으면 하는데 너무나 욕심이 많은지現在 民團事務所를 빌려 집을 회를 가지고 있으나 民團의 協力도 커 앞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수 있는 伝道地이다. 아가씨들의 건강과 건투를 빈다.

前所述한바와 같이 그리스도교 선교의 시발점이 성경으로 시작되었고 또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성경의 역사라고 할진대 우 어서 또는 선교의 기본 정책에 있어서 성경의 요소를 더욱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다른 부분보다 막연하게 또 가법계 도외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반성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성령을 강조하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신학이 없고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있다고 가법계 웃어넘기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서 절제한바 있음으로 성경의 역사를 기대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아무리 선교의 기

곡조에 퍼져나간 것은 연한 사실이었던 것이다. 성령의 놀라운 힘에 미려서 吉善복목사는 교회 자체내의 성화운동에 의장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영적 싸움에 분투한 것만이 아니고 대외적으로는 나라를 잃고 도탄에 빠진 민초들을 바라보고 예수와 같이 울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三·一운동에 정력을 기울인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개인의 구려운동에만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몸바쳐다닌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一九〇七년의 한국의 부흥운동들 그 저 보수주의자들의 신비적이고 열광적의자들의 輕動이라고 우어넘길 것인가. 吉善복목사의 신앙이 신비적인 요소가 적다고 한지라도 억압과 가난에 눌려 소망

在日 동포의 既存諸団体의 協동적 활동을 모교 한다 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 우리 의 선교대성인 동포의諸 团体가 초청되었는지가 의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선한신 마리아인을 자처하면서 가까이해야 할 동포를 의면한채 먼길로 돌아서지 나가 버리지나 않는가.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기의 해서 잃어버린 60만 동포를 구원하기위해서 선교자를 내보내는 힘이 선령에 있는것을 명심합시다. 요를 느끼면서 성령강림 주간을 맞이하여 未備한 소감을 고백하는바이다.

(西新井教会講道師)

本 社 千葉県八千代市米本1448-1
電 話 0474 (88) 5579・1613番
営業所 千葉県船橋市前原西1-25-18
電 話 0474 (76) 6181～2番

